

●연중 제 29주일 강론
얼마 전 해외 선교에 나섰던 이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되어 전 국민을 애타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들이 엇갈리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령,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선교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선교도 중요하지만 실정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대두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 왈가왈부 하자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오늘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선교의 참 뜻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당신께서 명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을 뽑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고, 교회를 세우신 뜻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선교를 최상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교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의 길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믿음을 북돋우도록 격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리사이들의 위선적 행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이 먼저 복음 정신으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으로 사도께서는 코린토 전서 9장 22절에서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선교는 기득권을 지닌 자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같은 눈높이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참여입니다. 참여하기 위해 존중해야 하고, 함께 하기 위해 배려해야 합니다. 참으로 나를 비우고 겸

손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을 구하기 위해 인간의 지위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실상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 남들 앞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는 제 아무리 아름다운 언어와 출중한 웅변술로 주님의 가르침을 전한다고 해도 참된 복음화를 이루기 어렵고, 선교의 결실 또한 허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은총으로 채워진 진실한 제자라면 설불리 선교한답시고 나서기에 앞서 먼저 겸손의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니게 될 때에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나타나듯이 그 삶의 모범으로 인해 참된 복음화의 물결이 세상을 향하여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 김승주 요한크리소스토모 신부
(부산평화방송 사장)

하느님과 의 인터뷰

어느 날 나는 하느님과 인터뷰하는 꿈을 꾸었다. ‘인간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무엇인가요?’

하느님이 대답하셨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 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 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묵주기도 성월 기도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 미사 안내

오늘은 본당 신부님 휴가 관계로 공소에절로 지내며, 다음 주일은 박민규 신부님 (예수성심 성당)께서 오시어 미사 집전을 하십니다.

◎ 축하! 서부공소 창립 12주년 기념 한마당

오는 11월 05일은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창립기념 및 축하의 자리를 함께 갖고자 하오니

교우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오랫동안 뜻깊은 만남으로 정겹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각 구역장은 구역별로 개별 연락하여 그동안 소원 했던 교우들도 함께 동참 하도록 독려 바랍니다.

▶일시: 11월 04일- 미사 후

▶장소: 커뮤니티 센터(현지 성당 옆)

▶일정: 기념식 및 식사-오후 5시 15분~6시
여흥의 시간- 6시~7시
장내정리-7시~ 7시15분

◎ 성서 100주간- 합반수업

▶일시: 10월 25일(목) 오후 7시

▶장소: 한택중 막시모 형제 사무실

▶진행: 김영삼 시몬 형제

▶당일 수업 내용: 역사서 중- 여호수아(1장~24장) &판관기(1장~16장)까지

◎ 바뇌기도회 모임

10월 31(수) 오후 7시30분 (윤명원 형제집)

◎ 첫영성체 교리반모집

▶대상: 3 학년 이상 어린이

▶접수마감: 10월 31일

▶수업시작:11월

▶문의: 장연희 세실리아 자매(519 580 1115)

◎ 구역모임

▶2구역 10월 28일(일) 미사후 차후공고

▶3구역 10월 28일(일) 미사후 김흥식형제집

▶4구역 10월 27일(토) 오후7시 박순웅형제집

▶5구역 10월 27일(토) 오후7시 홍차근형제집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 세레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 택중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현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시다.

오늘은 교무금내는 날입니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공소일반공지 ◎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 ▶바뇌기도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미 사 전 레

해 설 김근효 차주 해설 이명희

화 답 송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시로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 나는 믿나이다.

봉 헌 (220) 생활한 제물

성 체

되 장 (63) 온 세상에 전파하리

독 서

10월 14일 박재영

박경미

10월 21일 한택중

한재희

10월 28일 허문애

허종애

봉 헌

10월 14일 김근효

김순희

10월 21일 박재영

박경미

10월 28일 한택중

한재희

복 사

10월 14일 원영

한힘

10월 21일 경은

현재

10월 28일 하람

지현

2007-42

2007. 10. 21.

연중 제 29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